



규제샌드박스로 공유자전거 신속 재배치

- 충전소 방문없이 현장에서 바로 배터리 충전·교체 진행
- 산업부, 동일·유사과제는 신속 심의·승인 위한 법개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0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공유 전기자전거용 이동형 충전차량 임대 사업, 인공지능(AI) 가변식 스마트 유도등 등 총 70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현대자동차’는 이동형 충전차량을 제작하여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는 방전된 전기자전거를 충전소로 옮겨 충전한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차량을 활용하여 직접 충전으로 전기자전거의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등 피크시간에 자전거 공급이 원활히 되어 사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우엘’은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하여 안전한 대피로로 안내해주는 가변식 스마트 유도등을 실증할 계획이다. 화재 사고 발생시 안전한 방향으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하여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동일·유사과제에 대해서는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통상 분기별로 개최하는 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수시 개최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승인이 가능해진다.

* 정부발의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상정('24.9.26)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출시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기반을 다져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	책임자	팀 장	유 은 (044-203-4520)
		담당자	사무관	김병규 (044-203-4523)

참고1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및 승인과제

□ 위원회 개최 개요

- (개최목적) 규제특례 신청안건 심의·조정 (근거: 산업융합촉진법 제8조)
- (위원구성) 위원장(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25명
- (심의기간) '24.10.16~10.22 (서면심의) → 10.23(수) 의결
- (의결안건) 실증특례 70건 ☞ 가결

□ 승인과제 목록

연번	구분	기업(기관)명	과제(안건)명
1	신규	현대자동차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차량 임대사업
2		삼성물산, 테크로스	청정수소 생산 알칼라인 수전해설비
3		선우엘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
4		HD현대중공업	LNG 연료추진선박 증발가스의 도시가스 활용 실증
5		이앤코, 건우엔지니어링	고망간강 LNG ISO 탱크 컨테이너 개발 실증
6		로드시스템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성인인증 서비스
7	동일·유사	두산밥캣코리아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수소충전 실증
8		파란캠핑카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9		유한회사우리자동차	LED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10~11		헤엄 등 2개社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12~18		클럽그라운드 등 7개社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서비스
19		콜마비엔에이치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20~70		롯데아울렛기흥점 등 51개社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참고 2

과제별 상세내용

①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차량 임대사업

→ 전기자전거 수거, 충전, 재배포를 효율화해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충전장치 탑재한 전기화물차를 이용해 공유 전기자전거 수거·이동 중 배터리를 충전·교체하고 재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현대자동차가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 차량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무상 임대해 업무에 활용한다.

< 공유 전기자전거 이동형 충전차량(좌) 및 배터리 충전장치(우) >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화물차의 화물운송용 임대가 금지돼, 차량의 최종 수요자인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가 직접 차량을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이용하면서 추가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 심의위원회는 출·퇴근 시간 등 피크시간에 적시 배치를 통한 사용자 이용 편의성 제고, 유지보수 업무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 공유 전기자전거 수거·충전·재배포 프로세스 효율화, 화물칸 확대 및 슬로프 설치를 통한 적재·하역 작업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는 물론, 전기화물차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② 태양광 연계 청정수소 생산 알칼라인 수전해설비 실증
 → 탄소강 재료로 수소 생산비 절감 및 청정수소 상용화 촉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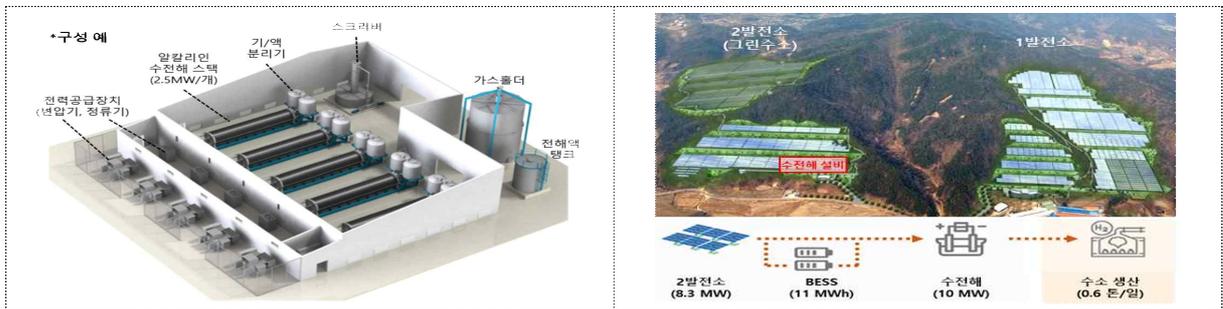
□ 삼성물산, 테크로스 컨소시엄은 태양광 발전과 연계해 알칼라인(Alkaline) 수전해설비*로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 알칼리 전해액을 사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전기 분해하는 설비

○ 설비 구조물 및 배관에 내면 코팅을 미적용한 대신 충분한 부식 여유*를 적용한 탄소강을 사용해 수소생산을 실증한다.

* 부식발생 손실을 예측해 두께를 여유 있게 하는 것

< 청정수소 생산 알칼라인 수전해설비 구성(좌) 및 실증장소(우) >



□ 수전해설비는 「수소법」상 수소용품으로, 제조자는 인허가, 제품검사 등 관련 법령상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부식 우려 부분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하고, 탄소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코팅 의무*가 있다.

* 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271)

○ 신청기업은 새로운 수전해설비에 대한 실증으로 수소생산, 전력소모 등 생산효율 및 운영 안전성 검증하기 위해 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수소 생산비용 절감*, 친환경 그린수소 상용화 기반 마련 마련 기대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부식 여유가 적용된 탄소강 사용 시 스테인리스강 대비 비용(재료비) 1/4 이하로 절감

** (부가조건) 실증안전기준 마련·준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산·학·연 전문가 참여 자체 안전위원회 구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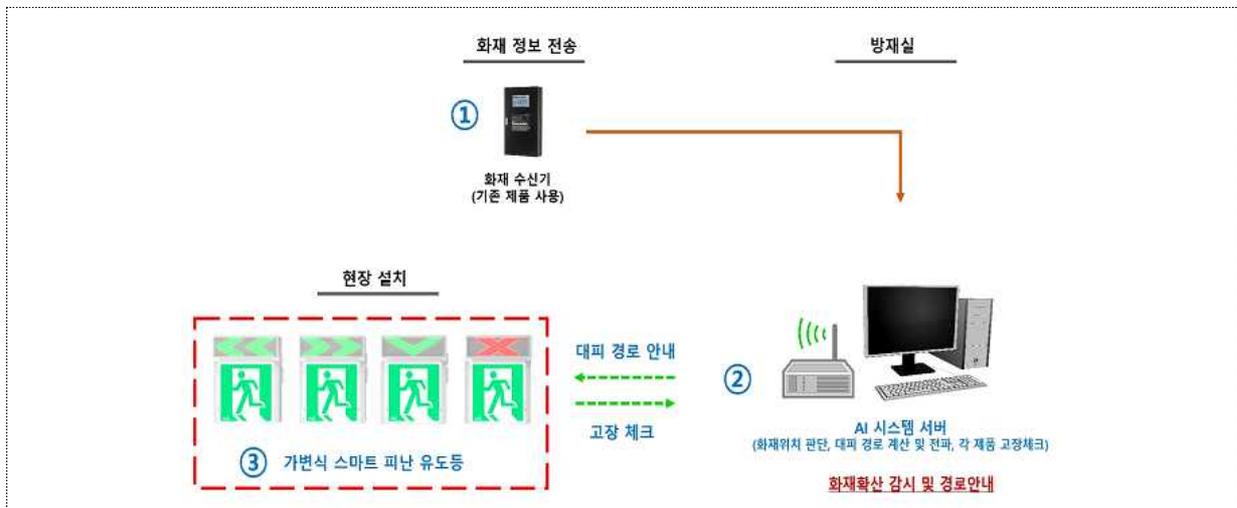
□ 본 실증을 통해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AI 기반 스마트 피난 유도 시스템 실증

→ 실시간으로 최적 대피 경로를 안내하여 인명 피해 최소화 기대

- 선우엘은 AI를 활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 시스템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사람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위험 지역을 회피하고 안전한 구역으로 안내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서울, 경기도 내 연면적 20만㎡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두 곳에 각 100대씩 설치하여 실제 화재 상황에서의 효율성과 피난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 스마트 피난 유도등 프로세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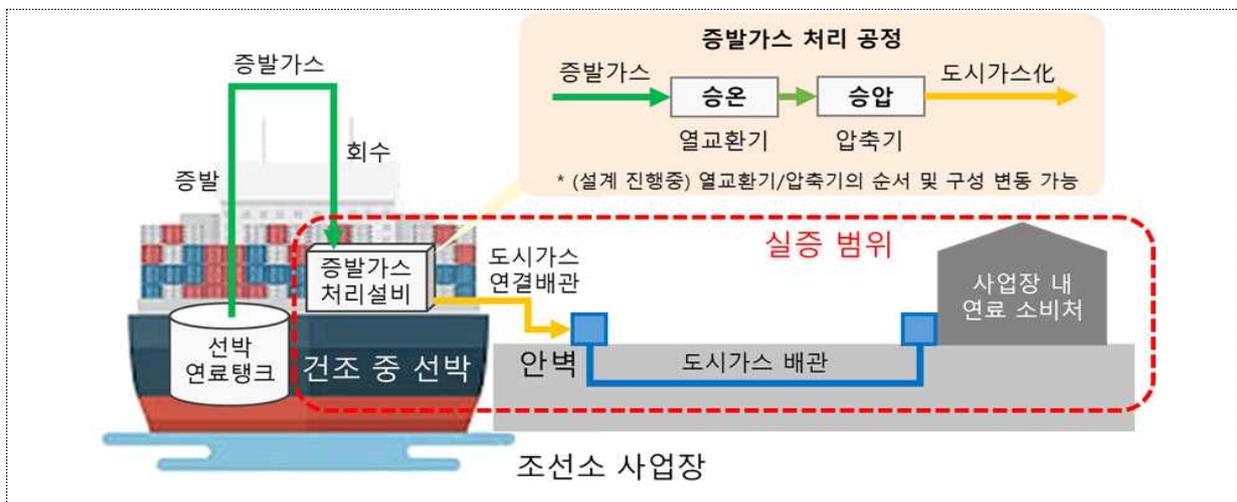
-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AI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은 부재하다.
- 신청기업은 AI 기반 시스템이 정확한 화재 위치 분석과 대피 경로 계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피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하였다.
- 본 실증을 통해 대규모 건물에서 화재 시 최적의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화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④ LNG 연료추진선박 증발가스의 도시가스 활용 실증

→ 대기 방출되는 증발가스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

-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은 건조 중인 LNG 연료추진선박 연료탱크 내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회수하여 사업장 내 자가소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 증발가스는 LNG 연료추진선 안벽 시운전 과정 중 탱크 내 LNG 연료의 자연 증발에 의해 생성되며 현재는 탱크 압력 관리를 위해 대기 배출된다.
-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은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증발가스 처리설비로 회수 후 도시가스와 유사한 형태로 처리하여 사업장 내 자가소비할 예정이다.

< LNG 연료추진선박 증발가스의 도시가스 활용 실증개요 >



-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증발가스 자가소비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증발가스의 자가소비를 위한 각종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실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신청기업은 증발가스를 사업장 내 재활용하기 위한 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증발가스 자가소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도시가스 품질유지를 위한 실증용 안전 기준(안)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실증하는 것을 전제로 특례 승인 하였다.
- 본 실증은 대기로 버려지던 LNG 증발가스의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선박 건조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⑤ 고망간강 LNG ISO 탱크 컨테이너 개발 실증

→ 성능 및 경제성이 뛰어난 신소재 ISO 탱크 개발 기여

- 이앤코와 건우엔지니어링은 고망간강을 내조 압력용기 소재로 적용한 LNG ISO 탱크 컨테이너를 개발 및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 고망간강 소재는 망간이 10~30% 함유된 합금강으로써, 극저온에서 파손되지 않으며 스테인리스강 등의 기존 강재보다 인성 및 인장강도가 우수하고 경제성이 높은 소재이다.
- 컨테이너 형식 구조물 내 탱크로리를 배치하여 제작한 ISO 탱크에 스테인레스를 적용하는 방식은 상용화 되어있으나 이번 실증을 통해 신청기업은 고망간강 신소재를 적용한 ISO 탱크를 개발하고자 한다.

< 고망간강 LNG ISO 탱크 컨테이너 >



- 현행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ISO 탱크 컨테이너는 스테인레스강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나 고망간강 재질을 동일한 화학적 성분으로 해석하지 않아 개발 및 사용이 제한된다.
- 위원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인허가 및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고 추가안전조치 내용을 포함한 실증기준(안)을 마련,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인정하였다
- 본 실증을 통해 현재 고정형, 선박용 및 차량용 LNG 저장탱크에만 적용 중인 고망간강 소재를 ISO 탱크에 확대 적용함에 따라, 성능 및 경제성이 뛰어난 ISO 탱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⑥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성인인증 서비스

→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 개선,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한 성인인증

□ (주)로드시스템은 여권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모바일 플랫폼(앱)을 통해 여권 정보를 등록하면, 주류·담배 구매를 위한 성인인증에 활용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 여권의 인쇄면 및 IC칩에 내장된 신분정보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블록체인 DID* 디지털정보로 변환하고 공공기관 서비스 망과 연동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성인여부 확인 정보를 생성한다.

* DID(Decentralized Identity, 탈중앙화 신원인증 시스템) 사용자가 증명·인증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 생성된 정보를 활용한 성인인증 서비스를 편의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주류·담배 판매처에서 활용하는 서비스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자는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나, 여권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성인인증 서비스는 활용 불가하다.

○ 위원회는 해당 서비스 활용 시, 실물여권 소지에 따른 불편함, 분실위험 해소 등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 개선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분기별 보고 및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사고 발생시 즉시보고 등

<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성인인증 서비스 적용예시(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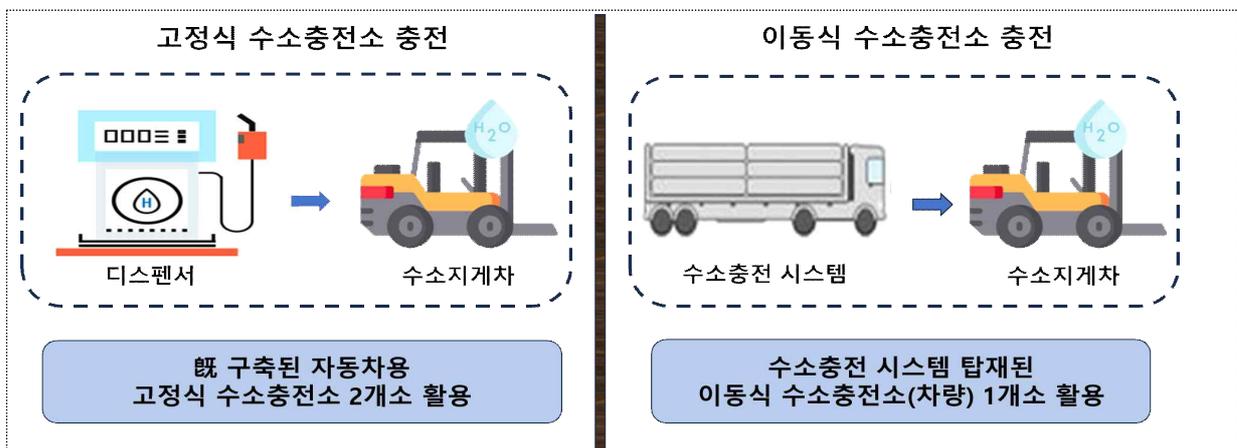
□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향후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⑦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 수소지게차 보급확대 기반 마련 기여

- 두산밥캣 컨소시엄은 수소 지게차 충전소 실증을 통해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지게차의 수소충전 안전성과 효율성 검증한다.
- 컨소시엄은 실증기간동안 자동차용 고정식 수소충전소 2개소와 이동식 수소충전소 1대를 활용하여 수소지게차에 대한 충전서비스를 시행한다.

<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실증 개요 >



-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차량용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하며, 수소연료지게차는 수소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차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이 불가하다.
- 신청기업 컨소시엄은 수소자동차용 고정식·이동식 수소충전소에서의 수소지게차 충전 및 운용 실증을 위하여 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사업자가 충전 안전성 확보와 안전관리계획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실증을 허용하였다.
-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하여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수소충전 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령의 기준·규격 마련 및 수소지게차 보급확대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⑧ 웹 기반 개인 소유 캠핑카 공유 플랫폼 서비스 사업 실증

→ 캠핑카 이용자 및 소유주 모두에게 경제적 편의 제공

□ 파란캠핑카는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웹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가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실증 서비스를 진행한다.

○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등록된 개인 소유의 유헬 캠핑카를 자격조건*을 갖춘 일반인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 만 26세 이상 및 운전경력 2년 이상

<‘개인 유헬 캠핑카 공유중개 플랫폼 서비스’ 개요>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차량대수, 차고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이 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여를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신청기업은 유헬 캠핑카를 수요자와 연결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이용자 선택권·접근성이 확대되는 점, ▲유헬 캠핑카의 사용가치를 제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①중개플랫폼을 통해서만 캠핑카를 대여할 것, ②신청기업에서 통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할 것, ③캠핑카 대여 시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등

□ 동 과제의 실증은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차주는 캠핑카를 이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대여를 통해 이용료를 받고, 주차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 또한, 이용자는 기존 렌트 캠핑카 대비 약 70% 수준의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하며 캠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⑨ **버스 유리창에 LED 디스플레이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 움직이는 시간·장소 맞춤형 LED 광고판으로 광고 효과 높여

- 유한회사 우리자동차는 버스 유리창에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디지털 광고 콘텐츠를 송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LED 버스 광고 실증과 더불어 45인승 버스를 업무회의가 진행 가능한 7인승 버스로 개조해 기업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안) >



-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상 규정되지 않은 등화기 설치와 총 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이 제한되고, 「옥외광고물 법」 시행령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창문 광고, 전기사용 및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이 금지되어 버스를 통한 LED 광고가 불가능하다. 또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상 디지털 광고물이 운전자 또는 보행자 시야에 장애를 주거나 주거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존재 한다.
- 위원회는 ▲이동 장소 및 시간 맞춤형 광고가 가능한 점, ▲차량 내부 공간 개조에 따른 이동 시 업무활용성 제조를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 * (특례조건) 차량 자체의 안전성 및 타 운전자의 운행 안전성 확보, 5곳 이상의 비상탈출 경로 구체화, 창문면적의 1/2 이내에서 표시, 차체의 우측면에만 설치, 주행 중에는 정지화면 표시, 광고 표출 시 내부 승객 눈부심 방지 방안 마련, 빛 방사 눈부심 영향 없도록 조치 등
-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디지털사이니지 기술 고도화 및 관련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⑩~⑪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 내 자동차로 광고해서, 부가수의 창출한다!

□ 해엄 등 2개사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 특례를 진행한다.

○ 신청기업들은 앱을 통해 차량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와 개인차량 운전자 간 광고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차량에 부착 가능한 스티커 등을 자기소유 자동차에 부착하여 광고

< 서비스 프로세스 >



□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상, 자기소유 자동차에는 타사광고를 할 수 없었다.

□ 위원회는 래핑 광고는 디지털 광고에 비해 차량·보행 안전 저해 우려가 적음을 고려하여, 교통·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표시 기준 준수, 래핑의 이탈·유실 방지대책을 제시, 기타 안전조건* 이행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하였다.

* 후면 스티커 형광·야광소재 사용금지, 측면 형광·야광 스티커로 인한 주민·운전자 불편에 대한 민원 수집,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임을 명시

□ 본 실증을 통해, 운전자는 개인 자산인 자동차를 활용하여 부가 수익 창출 가능해지고, 광고주는 타 매체광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 이용 광고 진행, 온·오프라인 동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차량 3면 부착시 한 달 최대 7.5만원

⑫~⑮ 이동식 장례시설을 통한 반려동물 추모

→ 이동형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서비스 실증 추진

□ 클럽그라운드 등 7개사는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염습, 추모 등)를 진행한 후, 정해진 고정장소로 이동하여 차량 내 화장로를 통해 유해를 화장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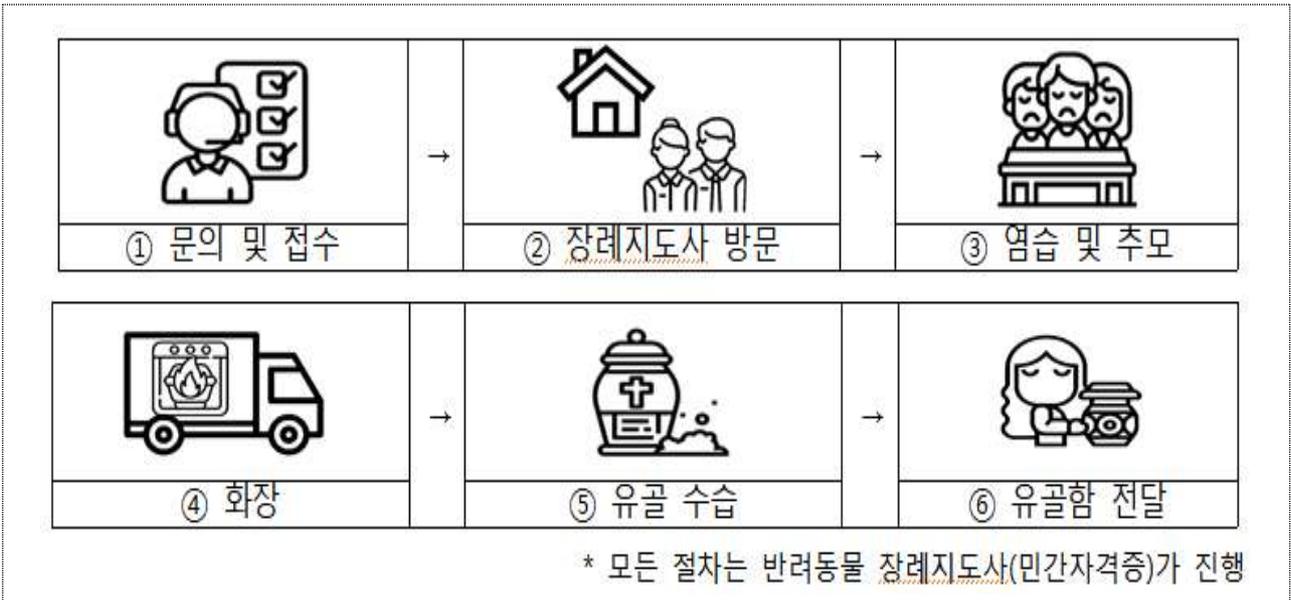
○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하여 이동식 장례시설을 통한 동물장묘업 허가 취득이 불가하다.

* 동물장묘업 사업장은 장례 준비실, 분향실, 냉동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므로, 화장차량은 이와 같은 기본 시설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움

○ 신청기업은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장례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부가조건) ①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이내 지역에는 설치 제한, ②서비스 제공 지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지정 장소에서만 화장 등

<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프로세스 >



□ 화장 서비스를 이동식으로 구현한 新서비스인 만큼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반려인의 편의성 증대 및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⑬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한 번에 섭취하세요!

→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으로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하다

□ 콜마비앤에이치(주)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 간편 섭취할 수 있도록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상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는 금지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제조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위탁 제조 가능하다.

○ 또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상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각각의 표시기준에 따라 주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에 정해진 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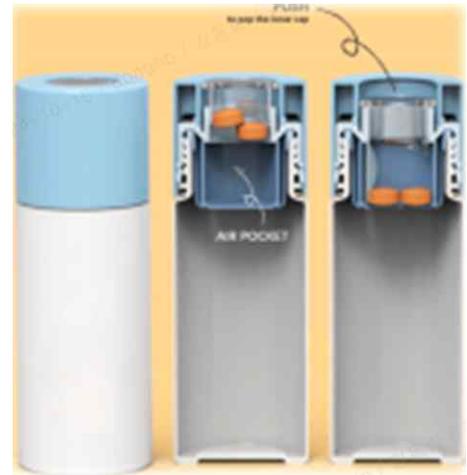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예시 >

○ 신청기업은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제품의 편의성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 했다.

* (특례조건) 안전성 확보, 소비자 오인 방지 등을 위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 준수 등

○ 승인기업은 식약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 을 준수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할 계획이다.

□ 동 과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간편한 휴대·섭취로 소비자 편의성 증진에 긍정적인 기여가 예상된다.



②⑩~⑦⑩ 반려동물과 음식점 및 카페에서 함께 데이트 하세요!

→ 반려동물과 카페 등 음식점 동반출입 가능

- 롯데아울렛 기흥점 등 51개社は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동반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현행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불가하다.
- 신청기업은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의 동물 출입을 허용하여 안전성 검증을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식품위생 등 기타 안전 문제(물림 사고 등) 예방 등 관리 필요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특례조건) 식품위생관리, 동물감염병 관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 롯데아울렛 기흥점 등 51개社は 식약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라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실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여부 기록관리 등

< 반려동물 동반출입 프로세스 >



- 동 과제를 통해 반려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 등으로 펫-휴머니제이션 시대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편의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반려동물 동반출입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